“나도 광주비엔날레 작가”

■ 시민참여 ‘만인보+1’

초등학생이 크레파스로 알록달록 색칠한 그림과 아마추어 사진 작가의 사진이 9월 광주 도심 곳곳을 물들인다.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은 시민들의 풋풋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이 작가로 참여하는 ‘나도 비엔날레 작가 : 만인보+1’이 전남대치과병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방림초등학교 등 광주 도심 25곳에서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공모를 통해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만인보’, 전남대병원 사진동우회의 ‘내 마음속의 시’, 양동시장 상가상인회의 ‘세기다방으로 오세요’ 등 25개 전시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손봉채 작가의 지도를 받아 작품을 창작해

‘만인보+’전에 참여한 극단 얼쑤 단원들이 1일 전시장소인 광주시 남구 대촌동 구 동초등학교 교실에서 막바지 전시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방림초등생들 이야기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남광주역·양동시장 등 도심 25곳이 전시장

오는 7일부터 관람객들에게 공개한다.

‘평화를 위한 백만인 얼굴 그리기 프로젝트’는 광주시청, 조선대, 김대중센터 등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의 얼굴을 그린 뒤 평화와 공익을 위한 염원의 글을 담아 광주시청에 전시한다.

광주방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사하는 ‘우리 잘 살고 있어요’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학교 학생들이 그린 아기자기한 작품을 선보인다. 불법국제결혼 플래카드로 얼룩졌던 도심에 아름다운 그림이 담긴 ‘치유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광주를 염원한다.

또 ‘미래를 위한 발걸음-잇다’가 주최한 ‘골목길 오감도’는 남광주역 일대에서 펼쳐지는데, 관람객들과 작가들이 함께 작품이 전시된 골목을 돌며 옛 도심의 추억과 흔적을 만끽하게 된다.

이색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시회도 들려볼만 하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1층 평강갤러리에서는 이 병원 사진동우회원들의 사진 작품을 볼 수 있고, 옛 대촌동초등학교에서는 타악그룹 ‘얼쑤’가 준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인시장 상인들은 시장 내 해남1번지, 선일식당, 영광식당, 나주식당 등 4곳의 국밥집에 손때 묻은 앞치마를 이용해 만든 작품과 시장에서 쓰는 낡은 물건들을 소개한다.

양동시장 내 세기다방에서도 상인들이 준비한 오래된 사진과 낡은 생활용품을 감상하고 상인들과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또 광주의 대표 고택인 양림동 이장우 가옥에서는 광주 근대역사 문화 해설사인 정장윤씨가 준비한 100년전 광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감상하고, 함께 주변 숲을 산책할 수 있다.

광주방림초등학교 학생의 ‘우리는 모두 친구 입니다’

이 밖에 칠석동 부용정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 일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을 뿜어내고, 물줄기 사이에 다양한 생물들의 이미지를 그려 넣은 작품을 전시한다.

아이숲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을 그려 전시하는 ‘동화나라 만인보’를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민 정체성 생생하게 보여줄게요”

손봉채 프로그래머

“현대미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광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시민들의 삶이 담긴 다양한 전시회가 여러분을 더욱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나도 비엔날레 작가 : 만인보+1’전의 프로그래머인 설치작가 손봉채씨는 광주비엔날레가 ‘시민 축제’로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비엔날레의 본전시가 거대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만인보+1’전은 광주시민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면서 “전문적인 작가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보여주는 ‘날것’의 상상력이 재미와 감동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과거 전문가들이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큰 틀을 짜놓은 뒤 작품을 모집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시민들 스스로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전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은 광주비엔날레가 일부 작가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그는 “25개의 전시를 30분씩만 관람해도 2박3일이 걸린다. 외지 관람객들이 광주 곳곳의 속살을 둘러보며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감상하면서 광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이돌 그룹 엠블랙

“너의 꿈을 노래하라”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4일 염주체육관서 열려

김창완 밴드

2010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본 행사가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청소년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5회째를 맞는 행사. 지난 5월 페스티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음악동아리 지원사업, 기타리스트 신대철씨 등이 참여하는 ‘뮤직캠프’(8월18일~20일), 윈디캣 등이 출연한 프리 페스타(8월20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페스티벌 본 행사는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4개 청소년 기관을 거점으로 타악, 댄스,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하는 1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100인 100색’으로 문을 연다.

이어 음원 심사와 라이브 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렘난트, 보싸다방, 코이, 학동역 8번 출구, MOA 등 10개팀의 열띤 경연이 펼쳐진다.

또 실력파 뮤지션들을 대거 초청했다. 청소년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엠블랙을 비롯해 김창완 밴드, 럼블피쉬, 정인, 스웨덴 출신의 라쎄린드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인디밴드 국카스텐, 킹스턴 루디스카, 고고스타, 스윗리벤지 등도 무대에 선다.

주최측은 청소년들이 좀 더 흥겹게 즐길 수 있도록 스탠딩 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본선 진출 10개팀의 창작곡이 담긴 기념 음반을 출시하며 12일 서울 홍익대 상상마당 라이브 홀에서 쇼케이스도 진행한다. 또 대상과 금상 수상팀은 광주 MBC의 ‘문화 콘서트 난장’을 통해 신인 뮤지션으로 데뷔 무대도 갖는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입장이다. www.gymf.or.kr. 문의 376-13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 ▶오늘 지하철 상무역

광주시낭송가회(회장 이미영)가 2일 오후 6시30분 광주지하철 상무역 상설무대에서 ‘제12회 빛고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를 연다.

광주시도시철도공사와 광주문인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양봉모씨의 사회로 시낭송가회 회원들이 참여, ‘무등산’ (이이행 작), ‘그대 가슴에 나는’(김미옥 작), ‘고향’(주광현 작) 등 아름답고 향기로운 마음을 담은 시를 낭송한다. 이자영씨의 플루트 연주와 김여진씨의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숙자·손덕순·장진규·김혜경·김정순·이슬아·이기환·방영남·정영숙·이미영씨가 나서 시를 낭송한다. 문의 010-3666-30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